

38선-한국전쟁의 원인

한국근현대역사기행



38선과 휴전선



1.한국전쟁의 기원을 보는 관점

- 한국전쟁The Korean War의 명칭 문제

- 6.25사변, 6.25동란 등. 현재 공식명칭 6.25전쟁
- 조국해방전쟁(북한), 항미원조전쟁(중국), 조선전쟁(일본;조선반도) 등 각국의 서로 다른 관점이 반영된 호칭들

- 전쟁의 성격

- 민족 내전Civil War. internal Warfare(남북 간의 대립과 갈등)
- 국제전(남, 북+미, 소, 중 참전=>북, 중, 미 휴전 협정 조인; 2차대전 종전 후 최초의 국제전쟁)
- 이념 전쟁(동서 냉전체제 하 국지적으로 열전)
- ⇒ 선전포고가 없었던 전쟁(국가 간 전쟁이 아닌 내전으로 발발)
- ⇒ 6월말 미군의 개입 결정, 10월말 중공(인민지원군) 참전, 소련군사고문단의 작전 계획과 북한의 수행
- 전쟁의 결정적 책임은 누가? 왜? 누가 승리한 전쟁인가?(종전이 아닌 휴전, 정전停戰)



1.한국전쟁의 기원을 보는 관점

- 전쟁의 기원(Origins)에 대한 여러 학설들

- 1) 전면적 남침설:전통주의 시각=소련의 스탈린 주도설

압력분산설(유럽에 미국 등 서방 진영을 묶어 두려는 목적)

미일조약 견제설(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소련의 패권 장악 시도)

허점공격설, 서방시험설, 무력시위설, 함정론 등

중국공모설(마오쩌둥의 모스크바 방문, BUT 당시 스탈린, 마오쩌둥의 합의 근거 자료 발견 못함)

⇒ 소련군사고문단의 작전계획에 의한 기습 남침, 3일만에 서울 점령
(6월 28일)



1.한국전쟁의 기원을 보는 관점

2) 제한적 남침설: 북한 병력의 1/2만 동원, 서울 점령을 목표로 함=바로 남하하지 않고 서울에 3일간 지체(평양-모스크바 전문, 한강 도강 장비 부족 등)

3) 전면적 북침설(북한의 조국해방전쟁 주장)

4) 남침 유도설: 스톤, 커밍스 등 미국학자들의 수정주의 학설

베트남전 반대운동 전후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을 비판하는 관점.
스톤, "미국의 맥아더가 이승만, 장제스, 덜레스와 공모하여 한국 전쟁 유도, 미국의 군사적 개입" 주장



1.한국전쟁의 기원을 보는 관점

- 외인론 vs 내인론: 내인론+외인론(내전적 형태로 출발했으나, 국제전으로서의 성격)
- "남의 동리에 와서 싸움을 붙여놓고 슬쩍 나가버리는 것"(김구, 남북 분단 정부 수립에 미.소의 책임 언급)
- ⇒ 미소 남북 좌우 갈등 대폭발: "미.소에 의해 준비되고, 김일성이 불을 당겼지만 스탈린의 허락, 동의 없이는 불가능했던 전쟁"(정병준, 한국전쟁, 돌베개, 2006)
- 한국전쟁 관련 자료들
 - 1970년대 미군측 자료(미국국립문서보관소NARA)공개(북한 노획문서 포함)
 - 1991년 소련 붕괴 후 구소련측 자료 공개-> 김일성 개전 주도 및 중국의 역할 부각



2. 한국전쟁의 대외적 요인(외인론)

1)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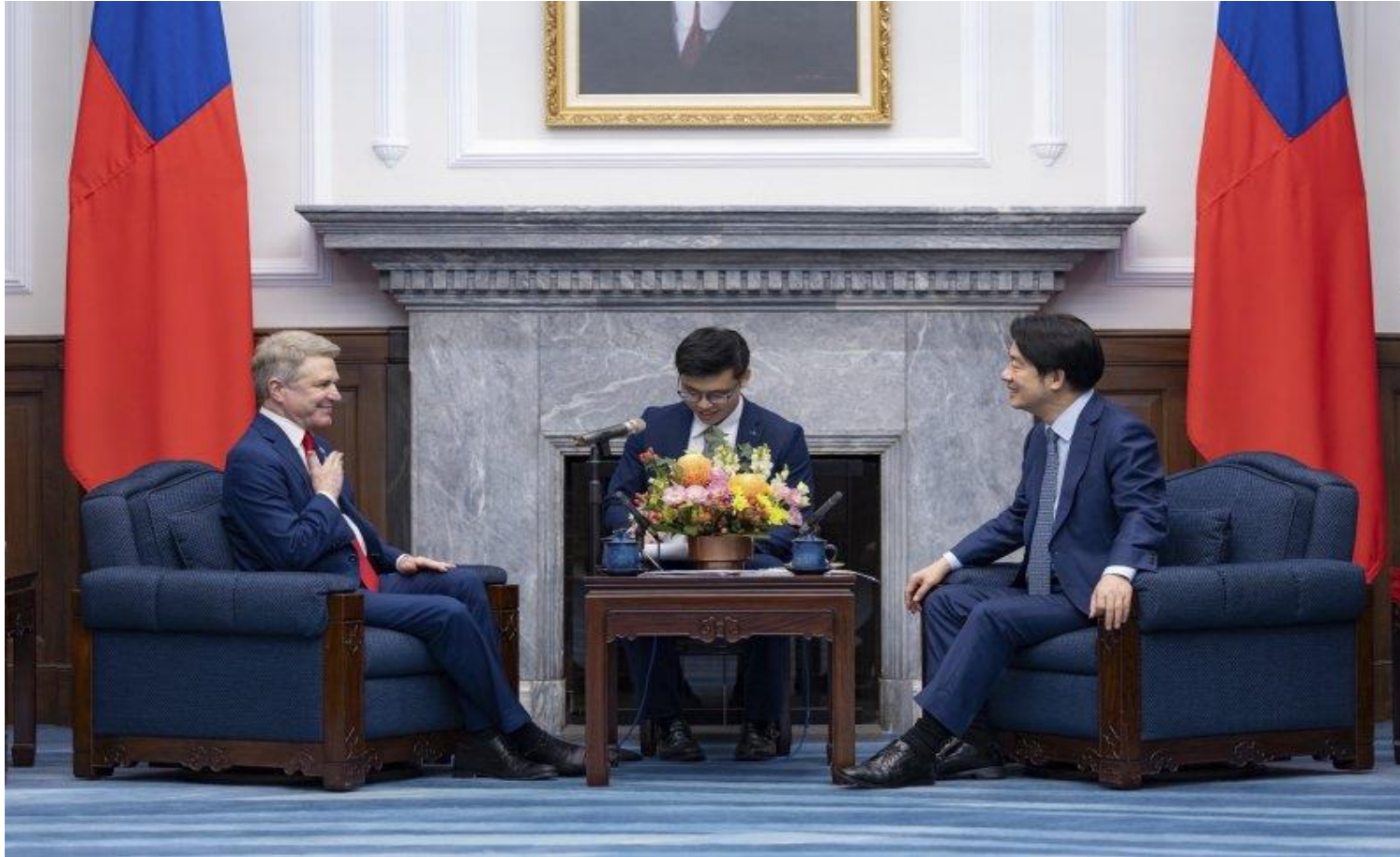
- 1947년 미소 공위에서 소련대표의 외국군 동시 철수 주장
- 미국 웨드마이어 보고서 "한반도에 부대나 기지 유지의 전략적 이점 없음"
- 1948년 9월~1949년 6월 미, 소 양군 대부분 철수
- 미 국무장관 애치슨의 성명(1950년 1월 12일)
태평양 지역 미국 방위선(애치슨라인) 선포(한반도 제외)
- <= 미국의 '남침유도설' 수정주의 시각(B.커밍스 주장)



미국의 애치슨라인



중화민국(대만) 라이칭더 취임과 중국의 대만 포위 군사 훈련. 미국 하원의장 대만 방문(2024.5.)



2. 한국전쟁의 대외적 요인(외인론)

2) 소련의 팽창주의 정책

- 전통주의 VS 수정주의
- 김일성의 스탈린 면담

(1946년 7월, 비공식 방문)

1949년 3월 5일, 7일 면담

- 1949년 8월, 미국의 중국 포기 선언
- 1949년 9월, 소련의 원폭실험 성공
- 1949년 12월~1950년 2월 마오쩌둥의 소련 방문



2. 한국전쟁의 대외적 요인(외인론)

- 1950년 3월 30일~4월 25일 김일성, 박헌영의 모스크바 방문
스탈린 '중국은 북한 원조 가능성. 미국은 한국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것. 소련의 원폭 보유'
- > 개전 결심했으나, 중국의 참전 동의를 받으라는 것(스탈린이 최종 결정권자이나, 책임은 회피하는 방안)
- 소련은 지상군은 파견하지 않음
- 북한에 대한 소련의 무기 원조
- 소련 군사고문단의 역할(작전계획과 전쟁 지휘)



2. 한국전쟁의 대외적 요인(외인론)



2. 한국전쟁의 대외적 요인(외인론)

- 구소련 비밀외교문서 기록(**1949년 3월 7일**)
 - 김일성 : 스탈린 동지, 이제 상황이 무르익어 전 국토를 무력으로 해방하고자 한다. 우리 군대는 강하고 남조선에는 강력한 빨치산 부대의 지원이 기다리고 있다(구 남로당 세력 20만 주장)
 - 스탈린 : 불가능하다. 북조선 인민군은 남조선군에 대해 확실한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수적으로도 열세다. 남조선에는 아직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. 전쟁이 나면 그들이 개입할 것이다. 적들이 먼저 공격해오면 절호의 반격 기회가 생길 것이다.
- 워싱턴 주재 영국대사관 근무 정보담당자(이중스파이) "중국이 참전해도 미국은 원자탄을 쓰지 않고 중국 본토로 확전하지 않는다는 백악관 결정" 소련에 전달
- * 당시 남북한 병력 수, 무기 비교



2. 한국전쟁의 대외적 요인(외인론)

3) 중국의 한반도 문제 개입

- 마오쩌둥의 인식(일본군의 한국전 개입 우려, 중국군 지원 의지)
- 1949년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 승리 후 조선의용대 출신 한인 병사 북한 귀환(동북의용군 3만7000명 이상. 북한군 전력의 1/3 차지)
- 1950년 5월 13일, 15일 김일성, 박헌영의 마오쩌둥 면담(스탈린의 지령 전달. 미소의 38선 협정과 달리 중국은 북한 지원 가능 주장. 중국의 개전 동의)

●최종 개전 책임은 누구에게 있었나?

스탈린(마오쩌둥+김일성) vs 마오쩌둥(스탈린+김일성)

- 1950년 10월 25일, 중국의 참전



2. 한국전쟁의 대외적 요인(외인론)



2. 한국전쟁의 대외적 요인(외인론)



한국전쟁의 전개과정

한국근현대역사기행



1. 한국전쟁의 대내적 요인(내인론)

1) 일제시대 민족운동세력 내의 갈등

- 부르주아 민족주의세력(우파) VS 사회주의세력(좌파)

2) 해방 이후 좌우 정치세력의 대립 심화

- 반탁 vs 찬탁

- 자유민주주의, 자본주의 체제 vs 공산주의, 사회주의 체제

=> 남북 분단 정부의 수립



1. 한국전쟁의 대내적 요인(내인론)

3) 38선 부근의 남,북한 군사적 충돌

- 1949년 6월까지 미,소 양군의 철수

- 1949년 7~8월간 38선 부근 군사적 충돌

용진반도, 개성, 의정부, 춘천, 강릉지역

- 남한 내 무장 유격대의 공세

여순사건 이후 빨치산의 침투(1948.11~1950.3 10회, 2400여명)

국군과 경찰의 토벌작전(비정규전)->지리산

20만 남로당 세력 주장(박헌영)



1. 한국전쟁의 대내적 요인(내인론)

- 이승만 정권의 **반공** 정책과 **북진통일론**
 - 군사적 긴장 고조와 전면전 확산 분위기
- => 남,북한 군 병력(*정규군, 예비군 포함 통계자료마다 다름)
- 1950년 6월 25일 북한군 132,538여명(+50,000여명)
 - 남한군 110,778여명(+경찰 50,484여명)
- => 북한의 군사적 우위



2. 한국전쟁의 전개과정

- 1950.6.25. 북한군의 기습 남침
- 1950.6.28. 북한군의 서울 점령
- 1950.7.4 미군 참전(한국군과 미군 최초 연합전선), 북한군의 남진 저지(평택-제천-울진선)
- 1950.7.8.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 임명
- 1950.7.24. 유엔군사령부 설치(한국군 작전통제권의 **유엔군 이관**)
- 한국전쟁의 '**국제전**'적 성격
(북한군vs유엔군=16개국 참전)



2. 한국전쟁의 전개과정

- 16개 참전국
 - 미국(연인원 180만명 참전, 3만7천명 전사, 10만명 부상)
 - 영 연방국(영국, 오스트레일리아, 캐나다, 뉴질랜드)
 - 유럽(프랑스, 네덜란드, 그리스, 룩셈부르크, 벨기에=영세중립국 포기, NATO가입), 터키
 - 아시아(필리핀, 태국)
 - 아프리카(남아프리카공화국, 에티오피아)
 - 남미 콜롬비아
- 5개 의료 지원국-스웨덴, 인도, 덴마크, 노르웨이, 이탈리아



한국전쟁 참전 기념(워싱턴D.C.)



2. 한국전쟁의 전개과정

- 한국전쟁의 군사사적 특징

- 전국민 동원 총력전(Total War): 정규군+소년지원병, 학도의용군, 국민방위군, 유격대 등 참전(ex영화 '태극기 휘날리며'(2004년)'의 18세 소년병)
- 20~30대 젊은 지휘관
- 다양한 군 경력자 참전: 광복군, 일본군(만주군) 경력자 참전/중국군, 소련군 등
- 지휘체계: 유엔군 사령부(미군,국군) vs 조중연합군 사령부(중국군,북한군)



2. 한국전쟁의 전개과정

- 1950년 9월 중순~11월말: 유엔군의 북진과 중국군 참전
 - 1950.9.15. 인천상륙작전(제물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-> 만국평화공원으로)
 - 1950.9.28. 유엔군의 서울 탈환, 북진
 - 1950.10.19. 유엔군의 평양점령
 - 1950.10.19. 중국 인민지원군의 참전(펑더화이 지휘, 26만명, 압록강 도강)
- * 항미원조전쟁, 순망치한론(cf.임진왜란)
- * 미국 VS 중국/소련의 역할



2. 한국전쟁의 전개과정

- 1950.12.15~12.24 유엔군(미군, 한국군 10만명)의 흥남 철수
 - * 미국 상선 매러디스 빅토리호와 14,000명의 피난민-> 부산, 거제도
 - 1951.1.4 한국정부의 후퇴-> 부산
 - 유엔군의 후퇴와 전선의 고착
 - 1951년 7월 10일~판문점 휴전회담(~1953년 7월 27일) 2년간
 - 국지전(38선상 주요 고지전투), 심리전 계속
- ex: 철원 백마고지 전투(총274954발 포탄 발사, 유엔군 항공기 754회 출격)
- Ex: 지리산 일대 '남부군' 전투







미군의 참전(맥아더)



유엔군의 참전



중국군 참전(항미원조전쟁)



중국군 참전(항미원조전쟁)



흥남 철수



흥남 철수



6.25전쟁 관련 영화들





판문점-끝나지 않은 전쟁

한국근현대역사기행



1. 휴전협상의 전개과정

- 1951년 말~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조인
- 이승만의 **북진통일론**(휴전 반대)
 - 1953년 6월, 반공포로 26,000명 석방(cf. 전쟁포로에 관한 국제법)
- 공산 측 외국군 철수 주장. 1953년 3월 5일 스탈린 사망으로 상황 반전
- 미국 측
 - 맥아더의 원자탄 사용 주장과 해임(1951년 4월)
 - 'Old soldiers never die, they just fade away'
 - 미군의 북한지역 전략적 폭격과 군사적 압력 강화
- 1953년 1월, 아이젠하워 대통령(노르망디 상륙작전, 한국전 참전) 취임(종전 공약)
- ⇒ 이승만의 강력한 종전 반대, 한미 군사동맹 요구(cf. 애치슨라인의 전례)
- ⇒ 한미상호방위조약: 미국의 군사 경제 원조와 한국군 증강 약속



2. 정전협정(Armistice Agreement)

- 1953년 7월 27일 오전10시, 판문점 정전협정('국제연합군' 총사령관을 일방一方으로 하고 '조선인민군' 최고사령관 및 '중국인민지원군'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 '정전'에 관한 협정)
- 유엔군측 수석대표 해리슨(**미국** 육군중장)
 - >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서명
- 공산측 수석대표 남일(**북한군** 대장)
 - > 김일성, **평더화이** 서명
- 한글, 영어, 중국어(전문 및 5개조)



2. 정전협정(Armistice Agreement)

- 종전(終戰)이 아닌 정전(停戰), 휴전(休戰)
- 제1조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에 관한 설정(쌍방 각기 2Km씩 후퇴, 완충지대로서 비무장지대DMZ 설치)
- 제2조 중립국감시위원회의 설치와 임무 규정
- 제3조 전쟁포로 교환 조치
- 제4조 외국군 철수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 소집 규정
- 제5조 부칙 규정



2. 정전협정(Armistice Agreement)



전쟁포로의 모습



3.한미상호방위조약

- 1953년 8월 8일, 변영태 외무장관과 덜레스 국무장관 가조인, 10월 1일 정식 서명, 1954년 11월 17일 발효
- 전문 '태평양지역에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'
- 제1조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
- 제2조 외부로부터 무력침공에 의한 위협에 서로 협의, 적절한 수단 강화
- 제3조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
- 제4조 상호합의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
- 제5조 각자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비준되면 효력
- 제6조 본 조약은 '무기한' 유효하다.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당사국에 '통고한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'시킬 수 있다.



3.한미상호방위조약

- 1954년 1월 15일 한국 국회, 1월 19일 미국 상원외교위원회 조건부 가결("대외적인 무력공격이 있을 때에만 상호원조할 책무를 갖는다"조항 첨가)
- 1954년 1월 26일 미국 상원 비준
- 이승만의 즉각적인 군사력 지원 요구로 연기, 11월 17일 비준서 교환.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한미합의의사록 조인(1955년 4억2천만\$군사원조, 2억8천만\$ 경제원조, 10개 예비사단 추가 신설, 79척 군함 및 100대 제트전투기제공. 지원조건 '유엔군사령부가 한국 방위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 작전지휘권하에 둔다')



4. 한국전쟁의 결과

끝나지 않은 전쟁 = '종전(終戰)'이 아닌 '정전停戰, 휴전休戰'

- 유엔군측 미군 대표, 북한군, 중국군 참여
- 한국은 불참

1) 남한-세계자본주의체제 편입

종속적 경제발전

강력한 반공체제 수립

(월남 인구 대규모 이동, 봉건적 잔재 일소, 산업화, 심리적 불안과 초조;
전쟁고아, 미망인, 실향민 등)

2) 북한-김일성 중심 단일지도체제 확립

북한식 사회주의체제 건설



4. 한국전쟁의 결과

3) 미국- 미국 역사상 최초로 승리하지 못한 전쟁. 반공, 반소의 극단적 매카시즘 유행(ex 영화계 찰리 채플린).

한국전쟁 경제적 특수.

But 'Forgotten War'

4) 일본- 경제의 재부흥과 재무장

5) 중국- 국제적 위상 강화

북한의 친중국화

cf. 소련의 위상 하락

6) 남북한 분단구조의 고착화

세계 냉전체제의 확립



전쟁이 우리에게 남긴 상처

- 남북한이 서로를 "공존할 수 없는 적"으로 규정
- 수많은 인명 살상과 물적 피해
- 남측 자료: 군인 사망 14만 7,000명. 부상 70만 9,000명. 행방불명 13만 1,000명. 민간인 사망 24만 4,000명. 부상 22만 9,000명
- 북측 자료: 군인 사망 29만 4,000명. 부상 22만 5,000명. 행방불명 9만 1,000명. 민간인 사망 40만 6,000명. 부상 159만 4,000명. 행방불명 68만명 *박찬승, 마을로 간 한국전쟁, 2010

=> 남북한 군인 사망자 약 44만명< 민간인 사망자 약 65만명(폭격, 좌우익에 의한 민간인 학살 *피카소, Massacre in Korea, 1951년 cf. 1937년 Guernica의 나치 희생자 1500명)



피카소, 한국에서의 학살(1951년)



판문점/DMZ

-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위에 걸쳐져 있는 공동경비구역(JSA, Joint Security Area)
- 통일부 판문점견학지원센터(<https://www.panmuntour.go.kr>)

